

'생생마을'에 익산시 9개 마을 선정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분야 옹포면 원대암마을·낭산면 내돈마을 등... 500~8000만원 지원

익산시(시장 정현율)의 농촌 마을 9개소가 전북도 사업인 생생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3,8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라북도의 삼각농정 중점사업으로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비와 시비로 추진하며 기초단체, 활성화단계, 사후관

리단계 등 마을의 추진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생생마을 기초단계 중 소규모 공동체 활동분야에 황등면 사남마을 등 6개소가 선정됐다. 또한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분야에 옹포면 원대암마을과 낭산면 내돈마을이, 에너지자립마을 분야에 황등면 무동마을이 선정되어 시비 포함 500만원~

8,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도시민을 초청해 쉽 공간 제공과 각종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농가 마당에서 캠프 하는 것으로 농촌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치가 있다.

시에 따르면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농촌마을이 당면한 문제인

인구 과소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마을 소멸 위기 등을 주민들이 직접 타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점에서 일반적 보조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은 "침체된 농촌마을이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군산군도 무너도 오토캠핑장 임시 개장

군산시는 무너도 오토캠핑장을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임시 개장에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활성화 및 도서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서별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노력했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무너도에 오토캠핑장(사이트 30면)을 조성해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정식 개장에 앞서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임시 개장에 전문캠핑클럽 초청행사를 진행하며, 임시 개장기간에 모든 단장을 끝내 5월 중에 정식 개장을 계획한다.

임시 개장기간 이용 예약은 9일부터 무너도 오토캠핑장 홈페이지(<http://mncamp.kr>)를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무너도 오토캠핑장에 대한 예약방법, 시설사용료 등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너도 오토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 안에 자리 잡은 무너도 오토캠핑장이 단장을 끝내 5월 중에 정식 개장하면 선유도 등 주변관광지와 어우러져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 캠핑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신청 288-9700

익산 폴리텍서 '전북 기능경기대회' 3종목 열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제48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3개 종목의 경기를 9일까지 연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북도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 기능인재를 발굴하는 명실상부한 경연의 장으로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등 도내 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에는 기계설계 등 40개 직종 총 409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교내 제1공학관에서 귀금속공예 및 보석가공, 용접 등 총 3개 종목의 경기를 열고 있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조석남 학장은 지난 5일 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제1공학관 각 경기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대회 실행 및 경기장 시설 점검상태를 확인했다.

조석남 학장은 "우리 대학의 우수한 시설 및 장비를 우수 기능인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제48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3개 종목의 경기를 9일까지 연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 "이번 전북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지난 2017년 제47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귀금속가공 직종에서 입상자 2명을 배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2018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성료

마라톤 참여 9800여 명 동호인들, 즐기는 축제분위기 연출... TV생중계

2018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8일 군산시 일원에서 1만1,000여 명의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역시 선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최적화된 코스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조성, 그리고 행사전반에 걸친 완벽하고 깔끔한 진행으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場)이 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대회 당일의 지역의 특색에 맞

게 만개한 벚꽃이 달리는 선수들에게 최상의 코스 컨디션을 제공해 주며 성공적인 대회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회에 참가한 국내의 정상급 마라톤 선수들은 그동안 같고 닳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하프 10km, 5km 코스의 마라톤에 참여한 9,800여 명의 동호인들은 경쟁보다 마라톤 자체를 즐기는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TV생중계를 통해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군산시의 생생한 모습을 전국에 알리는 효

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가족, 대회관계자 등 많은 관광객이 군산에 머물러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특산물을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통통제로 인해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를 유지해 준 군산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마라톤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번개맨 출동에 아이들 소리질러

익산예술의전당 'EBS 모여라 댕땡땡' 공개방송 성황

익산예술의전당(관장 김영희)은 개관 3주년을 맞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EBS 모여라 댕땡땡' 공연이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그동안 익산예술의전당은 성인을 대상으로 기획공연을 추진해 왔으나 많은 엄마들의 요청에 따라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지난 4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7시 등 총 3회에 걸쳐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EBS 모여라 댕땡땡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 신청부터 당첨되기까지 많은 부모와 아이들은 조바심을 냈고 당첨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가족들을 보며 공연을 주최했던 예술의전당과 제작측인 EBS

에서도 더 많은 가족들을 초대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당첨되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가족은 엄마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중 한 사람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입장했고, 3회 모두 대공연장(1,103석) 객석을 꽉 채웠으며 가족 중 보호자 한명이 아이를 안고 관람하는 형식이라 총 관람객이 5천명이 넘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모여라 댕땡땡은 찾아가는 공개방송으로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번개맨, 번개걸, 로보카 보안관 마리오, 똑딱이 아빠 등의 캐릭터들이 등장해 신나는 이야기를 풀어내며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 하는 공연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다채로운 체육행사 열려

익산시장애 킥복싱선수권대회·익산시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44일 첫째 주말인 지난 7일과 8일, 익산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익산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먼저 7일, '제1회 익산시장애 킥복싱 선수권대회'가 익산시킥복싱협회 주관으로 중앙체육공원 야외 특설링에서 벌어졌다.

이번 대회는 익산 소속 한국 챔피언 프로 복싱 선수들의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주니어, 여성, 남성 챔피언십과 생활체육방식 4가지 종목으로 나누어 참여하여 토너먼트 및 원매치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소수만 즐기는 종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생활체육으로서의 킥복싱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남녀노소가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방식의 경기로 진행했다.

또한 7일부터 8일까지는 '제9회 익산시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익산시배드민턴협회 주관으로 배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7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교부 신청·접수

익산시는 2018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접수 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희망 장애인 대상으로 신청, 접수 받으며, 올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보조기기 신청·접수에서 보조기기 교부신청자 물품 수령까지는 약 4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수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

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인원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준 지침에 의거 교부가 이루어지며 올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지원가능 품목은 육상예방법 방식 및 커버 외 27개 품목이다.

보조기기 교부 품목의 구체적인 사양 및 교부기기 사업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및 익산시 경로장애인 재활복지계(063-859-583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길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익산 Dream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